배경 이야기: 서론

4 장, 4 절, 2024년 1 월 29 일 (L)

지혜로 세워 그분께서 하늘들을 펼치시고 그분의 자비로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처럼 그분의 자비로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처럼 시편 136:5

연구자 김 호, 10분 12장

기독교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요한 1:1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 1:1 (성경 번역)

"The Sovereign of the universe was not alone in his work of beneficence. He had an associate—a co-worker who could appreciate his purposes, and could share his joy in contemplating the results of his handiwork.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The sam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John 1:1, 2. Christ, the Word, was the Father's chosen associate. He was one who could fully comprehend the character of purpose—one who could by being like God under stand the counsels and purposes of God.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Isaiah 9:6. He was one who could say of God, "Your law is my delight." Psalm 119:174. And the Son of God became concerning the Father, "I delight to do your will, O my God, yea, your law is within my heart." Psalm 40:8. "I and my Father are one." John 10:30. "When he prepared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then I was by him, as one brought up with him: and I was daily his delight, rejoicing always before him." Proverbs 8:27-30 (KJV)

"우주의 주권자께서는 그분의 사역에서 혼자 계시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동료, 즉 동료 일꾼이 있었는데 목적을 이해할 수 있고 결과를 관조하는 것에 대한 그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으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셨으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셨다." 요한 1:1, 2. 그리스도, 말씀은 아버지의 선택된 동료였다. 그는 목적의 성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셨다—하나님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조언과 목적을 공유하는 분이셨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칭하리라." 이사야 9:6. 그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 "주의 율법이 내 즐거움이니이다." 시편 119:174.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셨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나이다 오 내 하나님이여 주의 율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8.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 10:30. "그가 땅의 기초를 정할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 그 창조하신 것을 다 즐거워하며 그 앞에 항상 기뻐하였으니." 잠언 8:27-30 (KJV)

"태초에 말씀이 있으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셨으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요한 1:1, 2. 그리스도, 말씀은 아버지의 선택된 동료였다. 그는 하나님의 조언과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분이셨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칭하리라." 이사야 9:6. 그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 "주의 율법이 내 즐거움이니이다." 시편 119:174.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셨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나이다 오 내 하나님이여 주의 율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8.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 10:30. "그가 땅의 기초를 정할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 그 창조하신 것을 다 즐거워하며 그 앞에 항상 기뻐하였으니." 잠언 8:27-30 (KJV)

"Christ did not make himself one with humanity, he did verily take it. He did in reality become one with our nature. He was one with the Father before he came to our world. "The eternal Word, Jehovah, the Lord of hosts, the God of Israel, the God of the whole earth, he was the Son of God according to human descent. He is declared to be a man, even the Man Christ Jesus. This man," writes Paul, "was manifested in the very place from Moses, received the wife hath bubbed the house hath more than the house" (Hosea 9:30, 31)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와 하나가 되지 않으셨다. 그는 진정으로 그것을 취하셨다. 그는 실제로 우리 본성과 하나가 되셨다. 그는 우리 세계에 오기 전에 아버지와 하나였다. "영원한 말씀, 여호와,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는 인간의 혈통에 따라 그러하셨다. 그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되셨다. 이 사람은," 바울은 기록하였다, "모세로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아내를 받았으며 집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 (호세아 9:30, 31)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와 하나가 되지 않으셨다. 그는 진정으로 그것을 취하셨다. 그는 실제로 우리 본성과 하나가 되셨다. 그는 우리 세계에 오기 전에 아버지와 하나였다. "영원한 말씀, 여호와,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는 인간의 혈통에 따라 그러하셨다. 그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되셨다. 이 사람은," 바울은 기록하였다, "모세로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아내를 받았으며 집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 (호세아 9:30, 31)

"God is love." 1 John 4:8. What are these verses telling us that Jesus, God Himself, did—and why is this truth the most important truth that we could ever know?

요한복음 1:1, 2 말씀 참조.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그리고 이 진리가 왜 가장 중요한 진리인가?

"But while God's Word speaks of the humanity of Christ when upon this earth, it also speaks of his divinity, his oneness with the Father. The Word existed as a living, even an eternal Son of God, in union and oneness with his Father. From everlasting he was the Counselor, the Chosen One, the Delight of the Father, "rejoicing always before him." Proverbs 8:30.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Isaiah 9:6. "Thy law is within my heart." Psalm 40:8. "I and my Father are one." John 10:30. "Christ, the Word, was the Father's chosen associate. He was one who could fully comprehend the character of purpose—one who could by being like God under stand the counsels and purposes of God. "His

among the angels in heaven, that any who have once known God should become careless, should permit their minds to be absorbed in any temporal pursuit, and allow their attention to be diverted from the God of heaven, so that they wantonly and willingly forget their Maker, and substitute for him other lords and other gods. The day has come when there are lords many and gods many, and Satan has purposed to interpose himself between God and the human soul, so that men shall not give homage to God in keeping his law. Satan has wrapped about him garments of angelic brightness, and he comes to men as an angel of light. He causes the guilty soul to see things in a perverted way, so that he hates that which he should love, and loves that which he should hate and despise. God is so misrepresented to him that he cares not to retain the true and living Father in his knowledge, but turns to the worship of false gods. He knows not that the love of God is without a parallel, yet Christ has revealed that love to a fallen world. John calls upon the world to behold the wondrous love of God, saying, 'Behold, what manner of love the Father hath bestowed upon us,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sons of God; therefore the world knoweth us not, because it knew him not.'" RH March 9, 1897, par. 10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신성한 유사성을 따르는 인격을 형성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을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부주의하게 되고, 현세적인 추구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되어 창조주를 원치 않고 기꺼이 잊고 다른 군주나 다른 신으로 대신하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 사이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군주가 많고 신이 많은 날이 왔으며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 사이에 자신을 개입시켜 사람들이 그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께 경의를 표하지 않도록하려고했습니다. 사탄은 천사의 빛의 옷을 입고 빛의 천사처럼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죄 많은 영혼으로 하여금 사물을 왜곡된 방식으로 보게 하여 사랑해야 할 것을 미워하고 미워하고 멸시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 잘못 표현되어 참되고 살아 계신 아버지를 자신의 지식에 두지 않고 거짓 신을 숭배하는 데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세상에 그 사랑을 계시하셨습니다. 요한은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그러므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므로 우리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라고 세상에 촉구합니다." RH 3월 9일, 1897, par. 10

10월 18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By coming to dwell with us, Jesus was to reveal God both to men and to angels. He was the Word of God,—God's thought made audible. In His prayer for His disciples He says, 'I have declared unto them Thy name,'—'merciful and gracious, long-suffering, and abundant in goodness and truth,'—'that the love wherewith Thou hast loved Me may be in them, and I in them.' But not alone for His earthborn children was this revelation given. Our little world is the lesson book of the universe. God's wonderful purpose of grace, the mystery of redeeming love, is the theme into which 'angels desire to look,' and it will be their study throughout endless ages. Both the redeemed and the unfallen beings will find in the cross of Christ their science and their song. It will be seen that the glory shining in the face of Jesus is the glory of self-sacrificing love. In the light from Calvary it will be seen that the law of self-renouncing love is the law of life for earth and heaven; that the love which 'seeketh not her own' has its source in the heart of God; and that in the meek and lowly One is manifested the character of Him who dwelleth in the light which no man can approach unto." DA 19.2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러 오심으로 인간과 천사 모두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생각을 들려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음과 선과 진실이 풍성한 주의 이름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계시는 지상에 태어난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세상은 우주의 교훈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구속 사랑의 신비는 '천사들이 바라보고 싶어하는 주제'이며, 그것은 끝없는 시대를 통해 그들의 연구가 될 것입니다. 구속받은 존재와 타락하지 않은 존재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영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갈보리의 빛 속에서 자기 포기 사랑의 법은 땅과 하늘을 위한 생명의 법이며, '자기 자신을 구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온유하고 낮은 자에게는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DA 19.2

"In the beginning, God was revealed in all the works of creation. It was Christ that spread the heavens, and laid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It was His hand that hung the worlds in space, and fashioned the flowers of the field. "His strength setteth fast the mountains." "The sea is His, and He made it." Psalm 65:6; 95:5. It was He that filled the earth with beauty, and the air with song. And upon all things in earth, and air, and sky, He wrote the message of the Father's love." DA 20.1

"태초에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일들 속에서 계시되었습니다. 하늘을 펼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우주에 세계를 걸고 들판의 꽃을 만드신 것도 그분의 손이셨습니다. '그분의 힘이 산들을 굳게 세우셨도다.' '바다는 그분의 것이니 그분이 만드셨도다.' 시편 65:6; 95:5. 땅을 아름다움으로 채우시고 공중을 노래로 채우신 이도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땅과 공중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를 기록하셨습니다." DA 20.1

추가 연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WhatsApp: (+63)961-954-0737
contact@advancedsabbathschool.org